가장 잘 '좋아하는 법'

(고린도전서 13:8~13)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가장 잘 '좋아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가장 잘 '좋아하는 법'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른바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바로 앞장의 마지막 31절에서 더욱 잘 나타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자면 본문 13장의 주제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방법은 사랑이 핵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12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 식으로 풀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리라는 내용입니다. 좋은 것이란 곧 우리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대상입니다. 그 좋아함 속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지 않으셔도 모든 인간은 이미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좋아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하신 말씀이 이른바 황금률로 일컬어지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하셔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에게 준만큼 받으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사람들에게서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구해서 받는다면 사람을 대할 때에 좋은 것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황금률의 말씀은 훌륭한 사람이나 멋진 사람이 되게 해주는 원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은 사람과 관계하는 동안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나면 더는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연관 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교회는 은사 문제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며 무엇이 더 큰 은사인지를 따지고자 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생활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취지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고금 이래 인간은 누구나 좋아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좋아함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토록 명쾌하게 정의한 문장은 인류역사 속에서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좋아함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통해 정의하였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생활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잘못 이해할 때에는 치명적인 오해와 그릇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신앙을 말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누구나 좋아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제로 하여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고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좋은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을 씀으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에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오디오 시스템의 스피커 하나에 몇 천만 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스피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산악자전거에 몇 천만 원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좋아함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실제로 갖게 될 때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리라 믿어지는 대상을 좋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이란 취함으로써 내게 만족과 기쁨이 주어진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의식하며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에서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명품을 사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닙니다.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여행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행이 좋은 것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 다음에는 소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실제로 갖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함 속에 믿음이 있고 좋아함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비단 신앙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에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좋아함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다음 단계인 사랑은 믿어지고 소망하던 좋아하는 것을 실제로 갖게 되어서 마음이 그것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내게 좋은 것으로 여겨진 대상을 손에 쥐는 것이고 그 좋은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좋은 것에 이르는 것이고 좋은 것을 성취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좋다고 여긴 대상을 접촉하므로 연합의 하나 됨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모두 좋아함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것을 얻는 방법이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 간과해왔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임을 간과했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에 치명적인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오해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곧 좋아함입니다. 재물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기쁨과 만족이 되리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는 재물

에 대해 마음이 모두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 지불될 마음이 더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도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고 여긴다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남은 마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좋아하는 것은 가족이 기쁨과 만족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합당치 않은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미 가족에게로 믿음이 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따라가도 실제 하나님을 좋아하기 위한 믿음이 표현될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세상의 형통을 좋아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 좋아함 속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좋아한다는 것은 곧 형통을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는 입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부를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여 실제로 하나님을 가진 상태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 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좋아함의 의미를 정확히 앎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need)로 하는 것과 좋아함(like)을 착각하기 쉽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은 필요가 충족되면 더 이상 원치 않게 됩니다. 반면에 좋아함은 가져도 계속해서 바라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경제발전을 지나는 동안 한국 교회 또한 “잘 살아보세”라는 표어를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아보고자 했고, 교회는 환경적으로 잘 살아보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제가 발전함을 따라 80년대 말에서부터 90년대 초까지 한국 교회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어 교인 숫자는 1200만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일본에 육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로 먹고 입는 생활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을 경험해보았지만 한

국처럼 먹고 입는 생활수준이 높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200만 명까지 이르렀던 교인은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들어온 교회성장학이라는 괴상한 신학사상이 주류가 되어있던 대한민국 교계는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일날 출석하는 인구는 25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조차도 허수라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좋아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아함에 포함된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통을 좋아하고 환경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좋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던 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통을 좋아해서 새마을운동을 외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했습니다. 환경적 새마을운동에 지불되었던 믿음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지불해야 함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결국 교회는 250만 명으로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태에서 계속 부흥했다면 교회가 안고 있는 병은 더 확장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위축된 지금이 제대로 되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좋아함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할 때에 믿음은 이미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님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좋아함의 속성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은사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사는 내 안에 없는 것이 밖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은사가 아닙니다. 본래 내게 없던 것이 주어졌기에 은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얻어서 하나가 되는 상태가 바로 사랑이기에 사랑이 제일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에서 결정됩니다.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아하는 방법도 결정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것은 좋아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하라는 요청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믿는 것은 돈이나 가족의 형통을 좋아하는 것과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인간 안에서 발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좋

아함 속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방송이 아침마다 외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되 정말로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길 밖에 없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한 마디도 마음에 담기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거나 복잡해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시시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외치고 설득해도 하나님의 좋으심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게 여겨지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젊었을 때에는 이성이 좋습니다. 결혼하면 기쁘고 만족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이 변합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사회적 위치가 좋은 것으로 여겨지니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팽개치고서라도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영원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영원토록 좋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 은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좋은 것에 대한 관점과 일치합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난 최고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사랑으로 번역된 말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사 또한 인간에게 주어져서 인간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사랑과 은사는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곧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강조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헌신을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족과 기쁨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이런 사랑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 같이 이타적 삶을 살아간 위인들은 사람의 칭송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칭송이 나의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랑과 봉사를 해도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가 됩니다. 돈이나 형통이나 건강 혹은 장수가 좋다고 믿어져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치며 살아간다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누리지 못한 채 끝까지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덕목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과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듯이 본문에서 언급된 사랑의 덕목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비록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갖는 사랑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은 분임을 믿고 소망한다면 그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소망하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기에 걸리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하나님으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랑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랑을 향해서 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의 단계에 있다면 이윽고 4절 이하에 기록된 사랑의 증상은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좋아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재물을 좋아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믿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형통을 좋아하고 건강과 장수를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하면서도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더 이상 교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에서는 이미 세상을 향해 믿음이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 지불할 믿음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을 좋은 것으로 구할 수 있는 은사를 받기 위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좋아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려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만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믿는 가장 큰 은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은 마귀의 속임수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좋은 분임을 믿고 소망하게 되며 사랑의 단계에 이르는 은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 믿음을 이식하려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죽게 하시고, 내가 어차피 좋아하며 살 수밖에 없는 마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단계를 거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최고의 은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